

전국 간호전문대학 교수 세미나

양 원 영

(적십자간호전문대학 교무과장)



1979년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간호전문대학장회 주관, 문교부 후원으로 교수요목 작성을 위한 전국 교수세미나가 적십자간호전문대학 책임하에 개최되었다.

이의 개최 목적은 79년도 문교부 방침에 의거 교수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100%의 연수 계획에 따른 그 일부로서 실시된 연수교육 과정이다.

이 연수 과정은 이미 준비된 문교부 회의 자료에서 계열별 연수교육 책임대학으로 적십자간호전문대학이 지정되었으며 전문대학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 되는 연수교육이므로 책임대학 교무과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마음의 부담을 안고 전국 교수세미나 준비를 위한 세부 계획에 착수 하였다.

I. 세미나 준비과정

1979년 5월 11일 문교부 주관 하에 전국 전문

대학 교무과장 회의가 소집되어 전국 전문대학 교수 연수교육계획에 대한 문교부 방침이 시달되었다. 문교부 취지에 따른 연수 교육 제반 내용을 알고자 전국간호전문대학에 79년 5월 18일 세미나 방법 및 일시, 기타를 알기 위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1979년 5월 24일 세미나 개최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전국간호전문대학 교무과장 회의를 소집,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 하였다.

- 1) 설문지 내용 취합 결과 보고
- 2) 주제발표자 및 과목영역별 그룹과장들의 역할담당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
- 3) 전국 교무과장 회의 자료에 제시된 주제가 교수요목 작성을 위한 조사 연구임을 알게 하여 담당과목 교수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강조
- 4) 세미나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 대학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여 준비위원 대학을 선출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선정된 준비위원 대학의 명단과 교무과장은 다음과 같다.

준비위원대학명단 및 교무과장(가나다 순)

성명	대학명
변창자	경희간호전문대학
양원영	적십자간호전문대학
윤순옥	지산간호전문대학
이군자	경기간호전문대학
이기숙	철도간호전문대학
조재천	대전간호전문대학
최철자	서울간호전문대학

1979년 6월 7일 준비위원대학 교무과장회의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저녁 6시가 넘도록 장시간 진행 되었다.

이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일시 79.7.18~24. 09:00~17:00
- 2) 장소
- 3) 세미나일정표 :
- 4) 교수요목작성 모형 :
- 5) 예산안 검토

6) 교수요목작성을 위한 과목별 책임대학 및 교수 선정 등이었다. 교수요목 작성에 있어서 과목별 선택에 많은 논란이 제기 되었다.

전공필수과목만 다루어야 무리가 없는 교수요목이 충분히 작성될 것이라는 의견과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통합해서 작성할 때 중복됨이 없이 더 바람직한 교수요목이 짜여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물론 이 두가지 방법에 각기 장단점이 있음은 물론이다. 전공필수만 다루면 우선 과목수가 적으니 시간절약, 경비절약, 인원절약이 되고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모두 다룰 때에는 재정 및 노력 인원수 등의 수요가 배가 된다. 그러나 벽찬 일인출 알면서도 두가지 과목을 전부 선택한 것은 나름대로 목적이 전연 없는것이 아니었다. 책임대학 교무과장으로서 모처럼 갖게되는 세미나 및 워킹과정을 통하여 전 과목에 대한 검토를 해보자는 의욕이 있었던 것이다.

우선 교수요목의 비중이 크다 하여 3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았다. 79년도는 전공필수과목, 80년도에는 전공선택과목 81년도에는 교양필수 교직과목등 이렇게 3년을 걸쳐 교수요목이 나왔다고 하자.

3년간에 제시된 교수요목이므로 훌륭한 교수요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 교수요목이 채택용되기도 전에 재조정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싶다.

오늘날의 시대변화는 10년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 10년이던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은 옛말이 되었다. 3년이던 변화를 주어야 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현명한 현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건을 오래두고 작업을 한다는 것이 결코 이익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과목에 따른 참가 대상자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대학의 업무량과다만 감안 한다면 과목영역별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만 추진 한다면 무리한 교수요목이 나올 것이라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79년도에 작성된 교수요목의 미비점을 오히려 1~2년에 걸쳐 수정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합의되어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 모두를 다루기로 하였다. 참고로 문교부가 제시한 간호전문대학 교과과정포함 지정된 담당과목 책임대학과 교수 명단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전문대학 看護科教育課程

(3年制)

區 分	教 科 名	學 點	時 間	備 考
教 養 科 目	國 民 倫 理	3	3	
	國 史	2	2	
	國 語	3	3	
	外 國 語	3	3	
	體 育	2	4	
	教 鍊	3	6	
	삼 라 학 개 론	2	2	
사 회 학 개 론	2	2		
자 유 선 택 과 목	2	2		
小 計	"	24	29	
	해 부 학	3	3	
	생 리 학 및 실 험	3	4	실험시간은 2시간을 1학점으로 간주함
	미 생 물 학 및 실 험	3	4	"

專攻必須科目	임상약리	3	3	
	병리적간호원론	3	3	
	간호철학및윤리	3	3	
	기본간호및실습(I)	3	5	실습시간은 3시간을 1학점으로 간주함
	기본간호및실습(II)	3	5	"
	기본간호및실습(III)	3	5	"
	건강사경법및실습	3	6	실습시간은 4시간을 1학점으로 간주함
	성인간호및실습(I)	3	6	"
	성인간호및실습(II)	3	6	실습시간은 4시간을 1학점으로 간주함
	모성간호및실습	3	6	"
	아동간호및실습	3	6	"
	성인간호및실습(III)	3	6	"
	정신간호및실습	3	6	"
지역사회보건간호원리및실습	3	6	"	
小計	51	83	小計	
專攻選擇科目	수술중간호및실습	3	9	임상간호선택
	중환자간호및실습	5	11	
	응급간호및실습	3	9	
	만성환자간호및실습	3	9	
	분만간호및실습	5	11	
	중환아간호및실습	5	11	
	정신간호및실습	5	11	
	병실관리및실습	3	6	
	인구및가족계획	2	2	
	모자보건및가족계획	3	9	지역사회보건간호선택
	환경위생	2	2	
	산업보건	2	2	
	학교보건간호및실습	3	9	
	보건교육및실습	3	9	
	보건통계	2	2	
	역학및전염병관리	3	6	
	지역사회보건간호및실습	3	9	
	보건행정및관계법규	3	3	
	지역사회정신보건	2	2	
단순치료및실습	3	9		
조산학및실습(I)	3	9		
(II)	3	9		
小計	35	80	小計	
인구및가족계획	2	2	교직선택	
환경위생	2	2		

	보	건	통	계	2	2		
	정	신	전	장	2	2		
	구	[강·위	생	및	2	5		
	단	순	치	로	3	9		
	학	교	보	건	3	9		
			간	호	3	9		
			"	(II)	3	9		
			"	(III)	3	9		
	교	적	과	목	14	14		
					36	63	小	計
小	計	開	設	學	34~36	63~80		
		廢	修	學	35			
隣接選擇科目數및學點					10			
合 計 總 履 修 學 點					120			

영역별 담당과목 책임대학과 교수명단

담 당 과 목	책 임 대 학	교 수 명
해부 및 생리학	청주	김순임
병리학·미생물학	삼육	정애순
임상약리학	경기	이숙경
간호철학 및 윤리	철도	이기숙
기본간호	인천	이숙자
성인간호	서울국립의료원	의철자·박춘자
모성간호	경기	장훈자
아동간호	경회	백승남
경신간호	경회	원정숙
지역사회보건간호	춘천	김성실
진강사정법	원주	김신숙

1979년 6월 16일 본대학 홍영숙 학장님의 주관하에 전국간호전문대학장 회의가 소집 되어 그동안 준비위원 교무과장회의에서 제시되었던 안건(일시; 일정계획, 그룹별 담당과목 책임대학 선정, 소요예산의 부담등)이 심의 결정 되었다.

1979년 6월 20일 교수요목 작성에 직접적 책임을 맡을 대학의 교무과장과 담당과목책임 교수들의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이 세미나 준비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완료 하였다.

II. 세미나 일정내용

1979년 7월 18일 전국간호전문대학교수 세미나

가 개최 되었다.

대학당 참가 인원을 3명으로 제한 하였으나 등록을 필한 교수는 무려 137명 이었다.

개회사에서 전국간호전문대학장회를 대표하여 홍영숙 학장님은 본 세미나 개최취지와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원의 이상형을 정립, 훌륭한 간호원을 배출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교수요목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 말씀이 계셨고 격려사에서 김도임 대한간호협회 회장님은 등불들을 리유로 한 교과과정 운영을 예로 들었다. 즉 불고기는 헤엄치는 데 관한 교과운영을, 두수리는 날아다니는 방법에 대해, 토끼는 뛰는 방법에 대해 각각 자기 영역들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는데 실시 결과 뛰지도 날지도 헤엄치지도 못 하는 교과운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어서 주제 강연으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전산초 학장님의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간호교육"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산업사회와 인간의 문제중 사회사상이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사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 하시면서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관리 문제에 있어 의료비 상승 문제와 건강관리, 질적인 간호, 일차건강관리,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른 간호의 역할, 간호학의 발전과정, 교과과정, 간호모델등에 관

한 제안을 하였다. 다음 순서로는 변창자 경희 간호 전문대학 교무과장의 “간호교육내용의 작성 및 방법, 오종환 경기간호전문대학장의 “교수방법”을 끝으로 제 1일을 마쳤다.

제 2일에는 박춘자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학 교무과장의 “교수요목작성”, 이근자 경기간호전문대학 교무과장의 “현장실습 이론”, 조재천 대전 간호전문대학 교무과장의 “교육평가”, 연세대 간호대학교수 김수지 박사의 “참간호 의의” 등 주제강연 등이 있은 후 3일째 부더는 금번 세미나의 주된 교수요목을 작성하기 위하여 과목영역별 그룹으로 분반되어 교수요목을 작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때 과목별 책임대학 교수들이 교수요목작성에 따른 워킹개최 의의를 재삼 강조 하였고 교수요목 작성전에 이에 따른 문제점 제시를 받은 후 이 문제점을 근거로 두고 교수요

목을 작성토록 하였다. 그리고 상황판단의 효율화를 위하여 매일 오전과 오후 2회씩 각 1시간에 걸쳐 각 과목책임 교수들과 평가회의를 가지므로써 각 그룹의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좋은 의견의 제시도 하였으며 과목영역별 진도상황을 판단하므로써 전체 진도의 보조를 맞추었고 해당과목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다른 공통과목과 중복됨이 없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루 2회에 걸친 책임대학 교수들과의 평가회의는 바람직한 교수요목 작성을 위한 방향 제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Ⅲ. 세미나 결과 제시된 주요 제의사항

일주간에 걸친 세미나 및 워킹 개최후 과목영역별로 문제점이 제시된 사항을 대략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과목 영역별 제의사항

과 목 영 역	제 의 사 항
해 부 및 생 리 학	해부학의 실습 시간 배정
입 상 약 리	기술과학 분야의 분과학회 개설 실습시간의 배정
미생물학, 병리적간호원론	약리학 연구 센터 구성 실습이 보완된 교재 편찬
기 본 간 호 학	전국간호 전문대학 교수 협의회 구성
간 호 월 학 및 윤 리	실습 시간 부족.
성 인 간 호 학	교과운영 자율성 인정(간호철학: 저학년, 간호윤리: 고학년) 담당교수 선정시 보직자, 연장자, 비간호계교수 선정 지양
모 성 간 호 학	최신기구 조작법을 위한 연수 교육 실시 실습환경 조성이 필요함.
아 등 간 호 학	졸업과 동시 조산원 자격 부여 연수 교육 실시
정 신 간 호 학	한 교수 한 과목지도를 원칙으로 할 것. 전국 간호 전문대 교수 협의회 구성
지 역 사 회 보 건 간 호 학	전공 필수, 선택으로 인한 국시 문제 전국 간호 전문대학 교수 협의회 구성
건 강 사 정 법	전공 선택 과목이 세부화되어 운영상 문제점 있음. 보건간호원 자격증 부여 담당과목 교수 연수 기회 부여 실습 기재 확보

이상을 종합해 볼때 그룹마다 제시된 의견은 계속적인 연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과 교수협의회 구성을 원한 점이었다.

특히 과목별로 전국적인 지도교수들의 도입이 어려웠던 차이에 각 대학의 여건과 실정을 듣고 또 들려주고, 배우고 배워 줄 수 있었던 이런 기

회가 얼마나 의의가 있었는지를 모두 실감하였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나온 의견으로서 - 첫째 전국교수 협의회 구성, 둘째, 과목영역별 조교 정원 확보였다.

IV. 세미나를 마치고

연수교육에 참가한 전국간호전문대학 교수들의 노력과 협조하에 간호전문대학의 교수요목 모형이 작성되었다. 일주간의 산고 끝에 탄생한 교수요목이고 보니 더욱 대견스러웠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하고 보완될 것이 많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간호교육을 위한 교수요목의 모형을 탄생시켰다는 데 나름대로의 의의를 발견하였으며 보람있는 결과였다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차기에는 질적·양적면에서 보다 알찬 내용의 교수요목이 되도록 활발한 보강 작업이 서둘러져야 되겠다는 책임을 느낀다. 앞으로도 현대사회는 변천과정이나 그 방향이 극히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이에 알맞는 교수요목이 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낀다. 바라는 작성된 교수요목이 보다 높은 의견의 제시를 끊임없이 받아들여 시대변천과정에 뒤집어 놓는 교수요목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함께 계속적 연구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세미나를 통하여 그 준비와 진행 및 결과를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점을 개괄적으로 열거해 보던 다음과 같다.

1) 참가대상

세미나 장소와 세미나 진행등 여건을 감안하여 일개 대학당 3명으로 연수대상 기준을 선정하므로써 연수과정 운영에 있어 충분한 의사발표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생각한다.

각 대학에서 실제로 교수요목작성에 참여한 교수는 전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 제외된 교수는 차기 대상으로 포함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주제의 연수범위

교수요목작성을 위한 조사연구라는 주제의 연수범위를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에 걸쳐 실시하였던 바, 양적면에서 쫓기는 경향이 있

었다.

전공필수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차계에 전과목에 대한 내용을 검토토의하므로써 문제점을 광활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 연수방법

교수요목작성을 위한 조사연구의 연수는 세미나와 워킹을 병행하므로써 연수성과면에서는 좋았던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연수지도 활동에는 애로가 많았다. 교수요목(전공필수 전공선택)의 작성에 있어서 이념적이고 논리적인 면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교과운영 면에까지 진지한 의견교환이 전개되었다는 데 이번 연수의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매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그룹 과목담당책임교수들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연수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협동연수분위기를 조성하였다.

4) 연수자료의 활용

워킹 결과로 작성된 교수요목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이용되어질 것을 바라고 싶다.

수일간에 걸쳐 작성된 집합적 결과물이 전국간호전문대학의 교수요목모형으로 간주하기에는 미흡하고 불충분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것을 자료로 활용하여 발전시킬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5) 연수준비

당초 경희대학 본관빌 연수장소로 주선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변전기 화재로 별관(외과대학) 건물을 연수장소로 사용하게 되어 연수에 참가한 교수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6) 연수준비 및 경비

필요한 유인물을 시간과 경비사정으로 효과적으로 배부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한다.

7) 연수결과 나타난 문제점 제의

각 그룹별로 연수 과정에서 검토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각 그룹별로 이를 종합하여 전국간호전문대학장학회의에 상정키로 하였다.

8) 제 언

(1) 작성된 교수요목 미비점 보완과 교과과정

운영상 문제점(학점, 시간수, 국가고시, 과목명칭 변경등) 개선을 위한 워킹 개회.

(2) 다음 연수교육 주제는 임상실습에 대한 교수요목 재조정 및 현장실습, 특히 새로 신설된 과목중 건강사정법에 대한 워킹 개회.

(3) 차기 연수방법은 지역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으로 노력의 결정체인 교수요목 모형이 작성, 프린트되어 이미 전국간호전문대학으로 송부되었다. 늦게나마 전국간호전문대학이 교과운영면에 있어 평준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에 후원하여 준 문교부와 전국간호전문대

학장회에 감사드리며 이 세미나 및 워킹 개회를 위하여 무더운 여름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수차 회의에 참석, 좋은 의견을 주신 준비위원 대학의 교무과장, 지도자적인 열의를 발휘해 주신 과목영역별 과장,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경희간호전문대학,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워킹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 교수님들 아울러 책임대학 학장님으로서 시종일관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 홍영숙 학장님을 비롯 적십자간호전문대학 전 교직원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신간안내>

어린이 간호의 원리와 실제

연대 간호대학 교수 한 정석
심 치정 편역
오 가실

어린이 간호의 목적은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 회복시켜 어린이의 신체 정신 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개인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함이며, 수준높은 간호의 수행은 전문적이며 차원높은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하여야 된다고 본다.

이 책은 이같은 어린이 간호의이론적 지식과 임상에서의 간호실제의 민첩을 연결지어 주는 목적으로 편집되었다.

이 책의 체계는 최근 어린이 간호의 실제적 기술을 익히는 데 많은 참고가 되는 G. Leifer의 Principles and Techniques in Pediatric Nursing을 참고로 한국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편역자들이 수정 보완하였다.

내용에는 최근 어린이 간호의 기술과 방법, 그에 필요로 되는 간호의 원리와 책임을 각 간호활동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발행

206페이지 정가 2,700원